



## 추석 명절 가정 예배

사도신경 ..... 다 같이

찬 송 ..... 429장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..... 다 같이

1 세상 모든 풍파 너를 흔들어 악한 마음 낙심하게 될때에  
내려주신 주의 복을 세어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 
2 세상 근심 걱정 너를 누르고 십자가를 등에 지고 나갈때  
주가 네게 주신 복을 세어라 두렵없이 항상 찬송하리라  
3 세상권세 너의 앞길 막을때 주만믿고 낙심하지 말아라  
천사들이 너를 보호하리니 염려없이 앞만보고 나가라  
[후렴] 받은 복을 세어 보아라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  
받은 복을 세어보아라 주의 크신 복을 네가 알리라

대표기도 ..... 가족 중 한 분

성경봉독 ..... 여호수아 24:15 ..... 다 같이

15 만일 여호와를 섬기는 것이 너희에게 좋지 않게 보이거든  
너희 조상들이 강 저쪽에서 섬기던 신들이든지 또는 너희가  
거주하는 땅에 있는 아모리 족속의 신들이든지 너희가 섬길  
자를 오늘 택하라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 
하니

말씀나눔 ..... 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 ..... 인 도 자

주기도문 ..... 다 같이

축복과 비전나눔 ..... 다 같이

※집안 어른들께서 지난 은혜를 되짚어 주시기를 바랍니다.

추석 명절을 맞아 이렇게 가족이 함께 예배드릴 수 있음에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. 이 예배가 하나님께 드리는 믿음의 고백이 되기를 바랍니다.

여호수아는 말년에 백성 앞에서 이렇게 고백했습니다. “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노라.” 이 고백은 한 사람의 결단이 아니라, 온 가족이 함께 하나님을 섬기겠다는 신앙 고백이었습니다. 가나안의 여러 유혹 속에서 그는 하나님을 선택했고, 그것을 가족과 공동체 앞에서 선포했습니다. 여호수아의 이 고백을 통해 우리 가정도 지켜야 할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.

### **첫째, 가정의 신앙은 계승되어야 합니다.**

여호수아는 자기 세대에서만 끝나는 것이 아니라, 후손들도 여호와를 섬기기를 바랐습니다. 믿음은 저절로 이어지지 않으며 우리가 서로 가르치고 본을 보여야 다음 세대가 이어받을 수 있습니다. 우리 가정도 부모의 믿음을 자녀에게, 또 자녀에서 다음 세대로 이어가는 복된 가문이 되기를 바랍니다.

### **둘째, 가정의 신앙은 선택과 결단을 요구합니다.**

여호수아는 “너희가 오늘 택하라”라고 말했습니다. 부모가 믿는다고 해서 자녀가 자동으로 믿음 안에 서는 것이 아니고, 자녀가 교회에 다닌다고 해서 부모가 반드시 신앙을 갖는 것도 아닙니다. 믿음의 길은 누가 대신 걸어줄 수 없으니, 우리 각자가 하나님을 섬기기로 결단해야 합니다.

### **셋째, 가정의 신앙은 감사와 헌신으로 드러납니다.**

하나님께서도 올해도 우리를 지켜주셨습니다. 이 은혜에 대한 감사가 말로만 그치지 않고, 사랑과 나눔, 헌신의 삶으로 드러나야 합니다.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며, 풍성한 열매를 거두는 이 계절처럼 우리 가정의 믿음도 더욱 성숙하게 맺히기를 바랍니다.

신앙을 이어가고, 각자가 결단하며, 감사와 헌신으로 살아갈 때 우리 가정도 하나님만 섬기는 가정이 될 것입니다. 이 시간, 다 함께 이렇게 고백합시다. “우리 가정은 여호와만 섬기겠다.”

### **[기도]**

사랑의 하나님, 풍성한 추석 명절에 가족이 함께 예배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.

지난 한 해 동안 우리 가정을 지켜주시고, 건강과 일용할 양식을 주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. 우리 가정이 예수님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하늘의 축복을 누리는 가정이 되게 하옵소서. 또한 여호수아처럼 “오직 나와 내 집은 여호와를 섬기겠다”는 고백이 오늘 우리의 고백이 되게 하옵소서.

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. 아멘.